

##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에 영광의 무시이군과 고죽지현·아로현은 일련의 변화를 보았다.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주군현제州郡縣制에 근간을 둔 지방행정체제를 재편성하게 된다. 영광은 처음 백제 고토를 장악한 당의 7주 52현 체제에 따라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기록된 것처럼 무시이군이 사반주沙湊州의 속현인 모지현牟支縣으로 개칭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모지현이 사반주의 치소로서 장성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세하지 않다. 더구나 당시 영광이 모지현으로 개칭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편이 백제 멸망 후 당나라가 시도한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계에서는 영광의 연혁을 논의할 때 모지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의 지방개편은 당나라 세력을 축출한 후 신문왕 5년(685)에 9주 5소경제小京制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영광은 무주武州(광주)의 관할로 바뀌었다가 경덕왕 16년(757)에 있었던 대대적인 군현 정비 때에 무령군武靈郡으로 개칭되었다. 이렇게 영광의 국가적 행정지명이 무시이군에서 무령군으로 개칭되었으나 그 관할지역은 군현 편제과정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당시 개칭된 장사현長沙縣(무장면)·고창현高敞縣(고창읍)·무송현茂松縣(의장면)을 계속 관할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의 영광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고죽지현과 아로현도 압해군壓海郡 관할의 염해현鹽海縣과 갈도현碣島縣으로 개칭되었다.

영광지역은 백제의 멸망과 신라의 통일에도 불구하고 군현 편제과정에서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군현의 명칭이 무시이군에서 무령군武靈郡으로 바뀌었으나 고창군 영역 내에 설치된 장사현長沙縣(무장면)·고창현高敞縣(고창읍)·무송현茂松縣(의장면)을 계속 관할하였다. 또한 서남해 도서지방도 아차산군에서 압해군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관할 속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신라의 행정개편은 백제 때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어 지방관과 그 부관으로 도독都督과 주조州助·장사長史를 1명씩 파견하고, 주·군에는 지방관을 감찰하는 외사정外司正을 각각 2명과 1명씩 배치하였다. 특히 주·군의 행정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외에도 지방출신의 토착세력이 관리로 복무하였다. 주에는 주사州司라고 부르는 지방관이 있었으며, 중앙에서 파견한 도독·주조·장사·외사정이 행정을 담당하였다. 여기에 이들 지방관을 보좌하면서 지방행정에 참여한 토착세력 출신의 주리州吏가 있었으며, 무진주의 주리 안길安吉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군·현 단위의 군사郡司와 현사縣司에는 지방출신인 공동公等이 군리郡吏·현리縣吏가 되어 참여하였다.

이들 '리吏'는 지방관과 촌주의 중간에서 행정연락과 조세 수취와 보관,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리'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모습도 보이나 토착세력의 면모도 가졌으며,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문을 구하고 연락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전남지역의 경우 백제시대에는 토착세력이 상당할 정도의 독자적인 기반을 유지하였고, 백제식 석실분(후기 횡혈식석실분)이 곳곳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토착세력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하는 촌주나 '리吏' 등의 실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토착세력이 지방관을 보좌하는 실무관료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군의 행정은 지방관인 당주·도사와 재지세력인 촌주·장척·문척 등의 합의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다.

또한 지방관이 역역을 징발할 때에도 군내의 유력한 재지세력으로 구성된 군사郡司의 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동원하였다.

그러므로 토착세력은 신라의 지방통치가 약화되면 국가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립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특히 영광을 비롯한 서남해지역의 해상세력은 독자적인 대외교섭이나 무역 활동 등은 봉쇄되었지만 전통적인 해상기반은 일정 정도 유지되었다. 후삼국시대에 영광의 여러 도서와 압해도 등지를 무대로 능창 등의 해상세력이 크게 세력을 떨친 것도 그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